| 바람의 언덕, 매봉산 (천의봉) | |
|---|---|
| **개 요** | · 태백산 국립공원의 매봉산 일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br>·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갈라지는 기점으로 대간과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프로그램<br>· 매봉산의 고랭지 배추에 얽힌 이야기 |
| **해설목표** | · 태백산 국립공원의 우수성 인지<br>·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역사 이해<br>· 바람개비 놀이를 통한 전기의 중요성 이해 |
| **대 상 자** | 모든 연령 |
| **대 상 지** | 매봉산 일원 |
| **코 스** | 바람의 언덕 ~ 매봉산 (1.5km) |
| **준 비 물** | 바람개비, 교보재, 구급약, 설문지 |
| **계 절** | 봄~가을 |
| **소요시간** | 60~80분 |
| **체험활동** | 바람개비 놀이 |
| **특성 및 유의사항** | · 해설자의 사전 모니터링 필요<br>· 대상자와 요구조건에 따른 해설을 달리한다<br>· 바람이 심한 곳이라 주의가 요구<br>·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역사 이야기 |
| **해설 시나리오** | |
| **1. 만남과 인사하기** | - 인사말<br>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봉산 일대의 자연 해설을 맡게 된 자연환경해설사 이영희입니다.<br>- 소개<br>이곳 매봉산은 1,303m입니다. 지적상으로는 천의봉이라 부릅니다.<br>천의봉은 하늘봉이라는 뜻으로, 옛날에는 동학교의 교주가 제사를 지냈고 대한 제국 말기에는 의병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br>또한 이 산은 한강 이남의 뿌리가 되는 산입니다.<br>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심지이고, 이곳에서 갈라져 백병산, 일월산, 주왕산, 부산 금정산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br>매봉산 이라는 이름은 봉이 '매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
| **2 바람의 언덕과 배추밭** | - 풍력단지 밑에서<br>이 지역은 해발 1,276m로 7~8월 평균기온이 12~19℃ 로 종일 초속 5-8m 의 바람이 불어 바람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

| | |
|---|---|
| | 2002년 풍력 자원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연구로, 2006년 풍력 발전기 8대를 설치하였고, 지금은 17기로 늘어났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넓은 배추밭은 1960년 경, 한미 재단에서 20만평을 개간, 화전민에게 나누어줘 현재는 30만평이 넘는 국내 최고의 고랭지 배추 밭입니다.<br>물빠짐과 일교차가 심해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튼튼한 배추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보상 받고 있습니다.<br>특히 이 지역은 고랭지 배추의 초록색, 하늘의 파란색, 바람개비의 하얀색이 어우러져 최고의 풍광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
| **3. 바람개비 놀이** | - 체험<br>지금부터 나누어드린 바람개비로 바람을 이용해 돌려 볼 것입니다.<br>이렇게 바람개비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갑니다.<br>바로 머리 위에 있는 풍력 발전소의 거대한 바람개비도 이 바람을 이용하여 돌아가며,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br>자 그럼, 이 큰 바람개비로 생산되는 전기는 여러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각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br>(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 각자 전기의 활용 답변 유도) |
| **4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 - 천의봉 정상<br>여러분, 이곳이 천의봉입니다. 이 천의봉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br>바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br>그럼 백두대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br>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억유산을 거쳐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계곡과 강을 건너지 않고 산줄기로만 이어진 큰 산줄기입니다.<br>길이는 1,400km이고 남한은 690km로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은 지금 서있는 천의봉 아래 구봉산에서 갈라져 백병산, 일월산, 주왕산, 부산 금정산까지 이어지는 307km의 산줄기입니다. |
| **5. 나무, 꽃 이야기** | - 봄과 가을까지 소재를 달리하여 해설 (가을편)<br>· 투구꽃 : 푸른 색감이 아름다운 투구꽃은 대표적인 가을꽃입니다.<br>꽃 모양이 흡사 오랑캐가 쓴 투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br>그러고 보면 투구를 쓴 것처럼 보이죠?<br>투구꽃은 예전에 사약으로 썼을 만큼 맹독성이 강한 식물이기에 주의를 요합니다.<br>만지는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먹으면 절대 안됩니다.<br>투구꽃 뿌리를 부자라 하여 한방에서는 미량의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br>· 용담 : 가을 꽃중에서 하늘색이 이렇게도 선명한 꽃이 있을까요?<br>가느다란 줄기에 이렇게 무거운 꽃을 많이 달고 있는 하늘색 꽃이 용담 |

| | |
|---|---|
| | 입니다. 꽃말은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합니다'입니다.<br>용담은 용의 쓸개라는 뜻이고, 뿌리는 한방에서 용담이라고 하는데<br>쓴맛이 강해 용의 쓸개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br>· 쑥부쟁이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까칠한 잎사귀탓에<br>꽃은 아름답지만 이름은 까칠한 식물입니다.<br>들국화와 비슷한 흰색,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br>· 산오이풀 : 가을에 피는 적자색의 꽃으로 잎을 비비면 오이냄새가<br>난다 하여 오이풀이라 부릅니다.<br>우리나라 산들에 지천으로 피어있으며, 꽃말은 '존경, 당신을 사모합니다'<br>입니다. 이 꽃을 보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br>· 어수리 :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어수리는 향이 좋은 나물입니다.<br>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꽃은 흐드러지게 하얗고<br>아름다워 루페를 이용, 자세히 살펴보면 아룸다움을 자세히 살필 수 있으며<br>강원도에서는 최고의 산나물로 칭합니다. |
| | · 참나무 : 참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br>참나무 종류에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br>졸참나무 등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태백에는 주로 신갈나무가 많이<br>삽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사는 참나무입니다.<br>참나무는 쓰임이 많아 옛날 사람들은 나무 중의 나무로 '참나무' 라고<br>부르기 시작했습니다.<br>수목 도감에는 참나무를 찾기 어렵습니다. 각자 특성에 맞는 이름을<br>붙였기 때문입니다.<br>상수리나무는 임진왜란때 피난을 간 임금님 수라상에 도토리묵을<br>올려 상수라고 부르다가 상수리가 되었고<br>굴참나무는 두꺼운 껍질에 세로로 골이 져 있어 골참나무가<br>변하여 굴참나무가 되었으며,<br>특히 우리 지역과 삼척, 도계에 이 껍질을 이용한 너와집이 있는데<br>지붕에 이 나무 껍질을 이용하였습니다.<br>졸참나무는 잎의 크기가 작고 나무 굵기도 작으며, 도토리 열매가<br>가장 작다고 하여 졸개, 졸병처럼 가장 작음을 의미하였고,<br>신갈나무는 잎의 크기와 모양이 사람의 발모양을 닮아 아픈 발바닥과 신발<br>사이에 잎을 여러장 깔았다 하여 '신 깔이 나무'에서 신갈나무가<br>된 것입니다. |
| **6. 마무리** | 오늘 여러분과 바람의 언덕, 천의봉의 역사에 대하여 탐방하였습니다.<br>이 아름다운 배추밭, 하늘, 바람개비와 함께한 여러분, 어떻습니까?<br>지금부터는 각자 탐방 중 느꼈던 점, 아쉬운 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br>이야기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br>오늘 천의봉 일대에서 탐방중에 본 소중한 추억은 가슴속에 간직하시고,<br>여러분의 아름다운 발자욱만 이 자리에 남기시길 바랍니다.<br>감사합니다. |

# 프로그램 개요

| | | | |
|---|---|---|---|
| **해 설 주 제** | 바람의 언덕 매봉산 탐방 | | |
| **해 설 소 재** | 매봉산 | | |
| **해 설 대 상** | 성인 | **해설지원** | |
| **해 설 재 료 ( 준 비 물 )** | 비상약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 **운 영 자** | 이영희 | | |

# 해설 시나리오

태백산 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될 태백산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 이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곳,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태백산은 2016년 8월 22일에 22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신라시대부터 약 1800년간 하늘에 제를 지내던 천제단이 있고, 살아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500년 된 주목의 군락지가 있으며 한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인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뛰어난 생태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곳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곳이 이곳만 하랴" 라는 말이 있는 매봉산  9부 능선에 해당하는 풍차 4호기 앞의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 <태백매봉풍력발전소>가 20기 정도 있는 바람의 언덕이기도 합니다.

매봉산으로 오르는 길은 두문동재에서 북쪽 금대봉 방향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피재(삼수령)에서 남서방향으로 따라 1시간 정도 걸어서 오르면 비단봉과 매봉산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30여분 오르면 매봉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수령에서 도로를 따라 올라오다가 고랭지채소밭을 가로지르는 농로를 따라 이곳 9부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봉산 남쪽은 경사가 급하나 북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약 60년전 한미재단에서 약 20만평에 달하는 땅을 개간하여 화전민들에게 나누어줬는데, 지금은 더 확장하여 약 40만평의 국내 최대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되었습니다.
고랭지채소는 무와 배추가 대표작물입니다. 보통 무와 배추는 수확시기가 김장철인 가을인데 반해 이곳에서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 추석 전에 먹는 여름배추를 심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더운 여름에 무와 배추재배가 안되기에 그 이점을 노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계절을 엇갈리게 하여 재배하는 채소라고 "엇갈이채소"라고 하며 한여름이나 추석 전에 출하하도록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왼쪽 매봉산 정상으로 먼저 가 보시겠습니다. 풍력발전기 3호기가 금방 보이네요. 여기서 앞을 보시면 태백시의 지세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앞에 구불구불 내려다보이는 길이 정선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 옆에 터널이 보이죠? 태백에서 정선으로 가는 정암터널입니다. 앞에 마을이 보이시죠? 그곳 중위에 작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기차역인 추전역이구요, 바로 앞에 능선을 보시면 12시방향 들어간 곳이 두문동, 그 옆에 우측 능선이 금대봉입니다. 왼쪽 10시 방향이 오투리조트이고, 오투리조트 뒤에 보이는 곳이 함백산입니다.
어떤가요? 태백이 훤히 보이죠? 이곳은 시원하며 태백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동하실게요. 이곳이 풍차가 처음 세워진 1호기예요.
금대봉 정상은 여기서 오른쪽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어휴~ 등갈퀴나물이 군락을 이루네요. 등갈퀴나물은 들이나 산기슭에 자라는 덩굴성 여러해살이 풀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잎이 8-12쌍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짝수깃모양의 겹잎입니다. 두해살이 덩굴 풀로써 줄기에는 네게의 모가 있고, 그 모 뒤에는 밑

으로 구부러진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다른 물체에 붙어 올라가죠. 마디마다 작은 잎이 6-8개씩 둥글게 배열되어있고, 잎 가장자리와 뒷면의 잎맥위에는 작은 가시털이 나있죠. 열매는 두 개가 나란히 붙어있고 작은 갈고리와 작은 잔털에 덮여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이네요.(천의봉 1303m)
매봉산은 천의봉이라고도 하며 천의봉은 하늘봉이라는 뜻을 가진 산인데 옛날 동학교주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말도 있고, 대한제국 말기에 의병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도 합니다.
천의봉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산으로 예전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산이라고 했어요.
백두산에서 뻗어내려온 산맥이 금강산, 설악, 오대, 두타산을 만들고 그 산이 남쪽으로 내려와 천의봉을 만들고 천의봉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니 서쪽 가닥은 금대봉, 함백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지리산으로 이어져 백두대간, 즉 소백산맥이 되고 그 줄기는 해남반도의 땅끝까지 뻗어가고 다시 남해안을 따라 구지봉까지 이어집니다.
동쪽가닥은 백병산, 면산, 일월산, 주왕산으로 해서 부산의 금정산까지 이어지니 낙동정맥 곧 태백산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의봉은 우리나라 한강이남의 모든 땅의 뿌리가 되는 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곳이 천의봉 전망대입니다.
바로 앞 좌측 11시방향 안테나 보이시죠? 함백산입니다. 제 2개간지(산깍아놓은 곳 보이시죠?) 화전입니다. 제1개간지(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학마을 이라고 오투가는 길)는 왼쪽 언덕에 있습니다. 바로 밑은 화전초등학교와 마을들, 저멀리 뒤쪽이 높은 곳이 바로 낙동정맥 중 가장 높다는 백병산(1292m)입니다.

다시 주차장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영남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태백에 들어서면 가장 북쪽에 가장 높게 솟아보이는 산이 바로 천의봉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봉이요 하늘로 통하는 산이며 하늘을 닮은 산이죠. 또 삼척시 하장면에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오면 가장 위쪽 하늘 가까운 곳에 있는 천의봉을 만나죠.
요즘 사람들은 북쪽을 위로 정하나 옛사람들은 방향을 따져 위아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과 물줄기로 위아래를 정했다합니다. 그래서 방향으로는 북쪽에 있지만 물줄기가 아래에 있다고 하장면이라 하고 방향으로는 남쪽에 있지만 태백시를 물줄기 위쪽에 있다고 상장면이라 한 것 이지요.
우측으로 가시겠습니다.(개미취)

여기는 개미취가 지천이네요. 가을이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꽃이죠.
개미취들이 가을을 재촉합니다. 개미취는 흔히 우리들이 들국화라 부르는 식물이죠.
국화라는 꽃말도 '너를 잊지 않으리'입니다.
개미취와 얽힌 설화 중에서 중세유럽에서 부인들이 개미취 목걸이를 걸고서 전장에 나가는 남편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군복 깃에 이 꽃을 꽂고서 행군에 나섰다고 하죠. 영어명은 미카엘 .축일이 될 즈음에 피는 데이지라는 뜻, 데이지는 태양의 눈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고대 이집트왕의 묘에서도 이 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화도 있는데요. 옛날 효성이 지극한 두 형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 매일 매일 산소를 맴돌며 우느라 아무일도 하지 못할 때 형은 각성하여 어떻게든 슬픔을 잊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무덤가에 슬픔을 잊게 해준다는 원추리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형은 슬픔을 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동생은 슬픔을 잊으려는 것은 아버지를 잊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하여 기억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자완을 심었는데 자완은 나물로도 많이 먹는 개미취입니다. 그 결과 동생은 아버지를 더욱 생각하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아버지의 혼을 만나고 예언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 후로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하는 풀로 개미취는 오래 기억하는 풀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여기보이는 예쁜꽃은 각시취입니다. 왜 각시취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빛깔이 새색시 볼처럼 화사해서 그리 불렀을까요? 아무튼 지금 매봉산에는 각시취가 지천으로 피었습니다. '각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작고 연약해보이며 예쁜 풀꽃들인데 역시 어여쁜 각시처럼 예쁘죠? 각시취는 잎에 털이 있어서 참솜나물이라고도 하며,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야생화입니다.

천의봉은 다른 이름으로 매봉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황지의 금계포란지 옆에 있는 정씨네묘가 금계포란 형국의 명당이라 하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면 천의봉이 매처럼 보인다고 매봉 또는 응봉이라 고쳐 부른 것이 유래가 되어 매봉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금계포란이란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인데 이럴때는 매나 수리가 이곳을 노려보고 있어야 닭이 긴장하고 그로 인하여 지기가 긴밀하게 되어 발복이 난다고 합니다.
진주지에는 매봉산을 응막봉으로 기록한 바 있고 왜인들이 산꼭대기에 혈을 지르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고도 합니다.

올해 처음만난 싱아입니다. 키도 상당히 크고 꽃모양도 풍성하네요.

박완서 작가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그 싱아이기도 합니다만 그 싱아는 실제로 수영이라는 식물이라고 하네요.
수영의 줄기를 벗겨서 씹으면 시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전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싱아도 종류가 많답니다. 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털이 아주 많은 경우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와 함께 매봉산을 탐방해보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쉬웠던 점,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알차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